

야타케 트레킹 코스

북동쪽에서 본 모습이 삼각형이어서 화살처럼 보인다 하여 이 이름이 붙여진 야타케(971m). 운젠 온천가 계곡에 인접한 두 화산 중 하나이며, 이 지역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정상까지의 등산은 최고의 코스로 시가지(온천가)로부터의 접근성도 좋고 멋진 조망도 볼 수 있습니다.

야타케로 가는 등산로에서는 산 상층부를 형성하는 자생식물인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볼 수 있으며, 하층부에서는 특히 팡팡나무, 제롬벳 진저를 비롯해 유명한 미야마키리시마(규슈의 진달래꽃)가 생육하고 있습니다.

올라가는 도중에는 현존하는 일본에서 2번째로 오래된 운젠 골프장이 북쪽에 우뚝 솟은 노다케, 묘켄다케, 헤이세이신잔과 함께 보입니다. 더 올라가면 산 밑에서 온천의 유황 냄새가 날지도 모릅니다. 정상에 도착하면 그곳에는 북서쪽으로 다치바나완, 동쪽으로 아리아케카이의 경치가 펼쳐집니다.